

종이로 빛은 기억, 오월을 담다



동구 미로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5·18민
주화운동 45주년 기획전 ‘오월, 종이로 빛은 시
간’이 열린다. 엄정애 작 ‘어머니(왼쪽)와 소년’

미로센터, 5·18 45주년 기획전...엄정애 작가·시민 8명 ‘종이인형’ 작품
‘소년이 온다’ 문재학 열사·잃어버린 신발 등 모티브...추모·기억 되새겨

아스팔트 위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렸다. 한 짝만 남겨진 구두, 구겨 신은 운동화, 흠뻑 젖은 뒤집어쓴 고무신과 슬리퍼... 신발주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만이 검은 벽처럼 도열해 있다.

1980년 5월,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떠나야 했던 영혼들. 그들에게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을 다시 신겨 주고 싶은 마음이 종이로 빚어졌다.

동구 미로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획전 ‘오월, 종이로 빛은 시간’. 이번 전시는 지난달 미로센터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 작가들과 ‘인형 엄마’로 알려진 엄정애 작가의 작품을 모았다. 이들은 창작을 통해 오월 영령을 추모하고, 살아남은 이로서의 책임과 기억을 되새기는 데 초점을 뒀다.

1954년생부터 1999년생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시민 작가 8명은 종이를 붙이고 발라 신발 형태의 조형물과 오월영령을 품에 안은 조상(祖上)의 인형을 완성했다. 운동화, 고무신, 꽃신 등 한 짝씩 놓인 신발에는 잃어버린 신발을 다시 신고 영혼

이 편히 떠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으며, 종이인형에는 떠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깃들여 있다.

1980년 당시 자신이 신고 다녔던 연두색 신발을 만들었다는 시민 작가 김희정씨는 “5·18 이후 집복 속에 살아야 했던 광주시민들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작품에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월 영령을 종이인형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당시 시신들을 수습했던 상무관의 풍경이 떠올라 손이 도저히 움직이지 않았다”며 “대신 어머니와 나의 모습을 인형으로 만들었는데, 완성하고 나니 그 시절 광주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민 작가 이다정 씨는 5·18 연극 ‘금희



시민작가 8인이
제작한 신발들.

의 오월’에 등장하는 빨간 꽃신과 어린 시민군을 종이인형으로 표현했다. 그는 “5·18 당시 시민군에는 어린 청년들이 많았다고 들었다. 작품을 만들며 어디선가 그들이 쫓기고, 맞아 축 늘어져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작업 과정에서 5·18을 직접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 마음을 담아 종이 한 장 한 장을 정성껏 붙여 작품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전시에서 엄정애 작가의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엄 작가는 고(故) 문재학 열사와 어머니 김길자 여사의 모습을 거대한 종이인형으로 형상화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는 단정한 교복 차림에 작은 들꽃을 손에 쥔 모습으로 표현됐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옛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산화한 그의 표정에는 단단한 결의가 배어 있다. 그 맞은편에는 아들을 바라보는 김길자 여사의 종이인형이 있다.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언제든 품에 안을 듯한 자세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먹먹함을 준다.

엄 작가는 “오월이 되면 유난히 가슴이 시리다.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려오는 듯하고, 골목 가게로 숨어드는 학생들의 위축된 모습, 금남로에서 싸우던 시민군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작업을 통해 가엾은 영혼들을 보살



펴달라고 기도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전하고자 했다”고 했다.

전시장 한쪽에는 작가들이 오월을 기록한 글들도 함께 전시돼 있다. ‘글 아카이브’ 워크숍을 이끈 임아영 문화기획자는 “5·18을 직접 겪은 세대가 기억을 꺼내놓으면, 교과서로 그날을 배운 젊은 세대는 조용히 귀 기울였다”고 작업 과정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재료로 쓰인 종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신문(2025년 3월)이었다. 그는 “5·18 종이인형’에 2025년 봄이 덧입혀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같다”며 “작업의 모든 순간은 오늘의 산 자를 도운 죽은 자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緣-아리랑’ 한·독교류전

28일까지 무등갤러리·ACC디자인호텔 갤러리

한국과 독일 작가들이 ‘연(緣)’을 주제로 한·독 교류전을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무등갤러리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에서 오는 28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전통채색 화협회가 주최하고 우정 미술관이 주관한다.

‘연(緣)-아리랑 COLORFUL’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는 한국작가 86명, 독일작가 6명 등 모두 86명이 100여점을 출품했다.

한·독교류전이 열리게 된 계기는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생수 대표는 2008년 독일문화관 초청으로 현지에서 한 달간 전시를 연 바 있다. 그것이 인연이 돼 2009년부터 한국과 독일에서 교류전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 작가는 강상권, 고금하, 고홍희, 기육란, 김경미 등이 작품을 출품했으며 독일에서는 미첼 펠드라우쉬 등이 참여했다.

김 대표는 “2009년 5월 독일 마르부르크시으로 한국작가들 15명이 전시를 열었고 그해 가을에는 광주 상록미술관에서 교류전을 가졌다”며 “아쉽게도 코로나 기간에는 잠시 중단이 됐다”고 전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교류전은 회화, 궁중미

술, 전통문양 등 장르가 다채롭다. 한국의 미술을 보여주기 위해 전국에서 작가들을 모집했으며 광주 회원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대표는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은 미술이 굉장히 섬세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독일은 한국의 채색화, 특히 옛날 궁중에서 내려오는 진채색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했다.

전시장에는 다양한 우리의 전통 민화를 비롯해 독일의 채색화 등이 전시돼 있어 두 나라의 예술을 비교할 수 있다. 단순히 두 나라의 미술 뿐 아니라 작품에 담긴 정체성, 역사 등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한편 김옥금 군장대 교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길상의 의미를 간직한 민화를 세계인이 사랑하고 그들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한다”며 “또 누군가의 행복을



기육란 작 ‘트랜스휴먼-네오모던’

빌어줘 도미노 현상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느 멋진 날’

강소이 작가, 28일까지 이화갤러리

휴에 대한 애정으로 조형물을 빚었다. 고온소성하는 도자조형물을 만들고 나름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마무리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그림으로 영역을 확장해 또 다른 이야기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한 강소이 작가. 강 작가가 이화갤러리에서 오는 28일까지 전시를 진행 중이다. ‘어느 멋진 날’을 주제로 펼치는 이번 전시는 도자로는 답을 수 없는 다양한 장면을 화폭에 담았다. 주제가 말해주듯 작가에게 멋진 날은 다분히 동화적이며 환상적이다. 일상의 풍경이 아닌, 마음 속 장면을 자신만의 화법으로 구현한 작품들은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한다.

‘꿈에’는 오리, 고양이와 함께 하늘을 나는 소녀를 초점화한 작품이다. 오색의 무지개가 하늘에 반원형으로 걸쳐 있고 주위에는 몽계구름이 두둥실 떠 있다. 하늘 아래에는 아지각기한 집들과 병풍처럼 에두른 산들이 드리워져 있다. 소녀의 행복한 표정은 마치 꿈이 아닌 현실의 모습처럼 생생하다.

‘안녕! 고양이’는 심드렁하게 쳐다보는 고양이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소



‘꿈에’

녀의 모습을 담았다. 화창한 날 소녀와 고양이의 엇갈린 표정은 동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강 작가는 “행복이란 근심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데, 돌아보면 부모님의 따뜻한 품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다”며 “관람객들이 작품들을 보고 행복과 기쁨을 느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 작가는 전주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지난 1997년 우진문화공간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수 개인전과 단체전, 아트페어에 참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묵직한 선율이 전하는 작은 휴식 ‘오티움 콘서트 II’

광주시향, 6월 13일 광주예술의전당...더블베이스트 성민제 무대

낮고 깊은 더블베이스의 음색이 도심에 잔잔한 여유를 더한다. 악기의 숨은 매력을 전하며 일상에 심표를 건넨 음악회가 찾아온다.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이 오는 6월 13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오티움 콘서트II-Double Bass’를 선보인다.

‘오티움(Otium)’은 ‘한가한 틈’을 뜻하는 라틴어로, 휴식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을 지향하는 광주시향의 기획 시리즈다. 올해 오티움 콘서트는 악기를 주제로 삼아, 클래식 음악 속에서 다소 낯설지만 매력적인 악기들을 집중 조명한다. 단순한 연주를 넘어, 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악기의 구조와 역할을 소개하며 관객과의 거리도 좁힐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깊고 낮은 울림으로 거대한 존

재감을 발휘하는 현악기, 더블베이스가 주인공이다. 광주시향 김영언 부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더블베이스의 매력을 들여다본다. 협연자로는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들며 활약해온 더블베이스트 성민제가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쿠세비츠키의 ‘더블베이스 협주곡’으로 막을 연다. 더블베이스의 기교와 표현력을 극대화한 곡으로, 악기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어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코끼리’가 연주된다. 낮고 무게감 있는 음색으로 코끼리의 느릿하고 우아한 움직임을 묘사하는 작품이다.

공연의 대미는 말러 교향곡 제1번 중 3악장과 2악장이 장식한다. 장대 행진곡을 연상시키는 3악장은 더블베이스의 독주로 시작되며, 곡 전반의 긴장

감과 묵직한 분위기를 이끈다. 2악장에서는 에너지 넘치는 리듬을 통해 더블베이스 특유의 생동감과 저음의 매력을 한층 더 강조한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이번 무대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더블베이스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클래식 음악이 전하는 여유와 울림을 관객들이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S석 2만 원. A석 1만 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더블베이스트 성민제.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한국학호남진흥원, ‘전라도 역사이야기’

29일 전남 동부본부 이순신 강당

예로부터 전라도는 의학의 고장으로 불리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라도의 선택은 큰 힘을 발휘했다.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곡가’(若無湖南是無國家)는 오늘날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울림을 주는 말이다.

2005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전라도 역사를 비롯해 전라도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다양한 활동상 등을 조명하는 강좌가 마련됐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은 오는 29일(오후 1시30분) 순천에 있는 전남 동부지역본부 이순신 강당에서 강연을 연다.



한현필

‘전라도 역사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에는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선다.

한국사강사이자 유튜브 구독자 100만 이상을 보유한 황 소장은 강연에서 ‘3·1운동 이후 지역 민족운동 조직의 형성과 확산’을 비롯해 ‘해방 전후 전라도의 정치·사회 변화’, ‘민중 주체의 항일운동 사례’ 등을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희망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한국학호남진흥원 문의 또는 안내문의 QR코드로 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